



KB증권
해외주식 아카데미 개최

KB증권은 오는 23일 서울 대치지점에서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해외주식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해외주식투자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KB증권의 해외주식전문 PB 및 세무전문 PB의 투자 노하우를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으며, 해외주식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23일 오후 4시부터 KB증권 대치지점 3층 대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환율 전문가인 외환컨설팅부 민경섭 상무가 '주요 국가 환율 흐름 및 전망'을 강연한다. 문외는 KB증권 대치지점으로 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대신에프앤아이 전자채 판매

키움증권은 대신에프앤아이 전자단지 사채를 세전 연 2.70%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신에프앤아이 전자채는 신용등급 A2 안정적(한국기업평가), 만기는 2018년 11월 2일(78일), 연 수익률은 세전 2.70% 수준이다.

한국기업평가는 대신에프앤아이가진 행중인 '나인원 한남' 사업관련 임대모집 성과가 양호하여 유동성 부담이 완화됐으며, 준공시점까지 추가적인 재무부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등급을 책정했다. 해당 전자채는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 받는 할인채다.

/손염지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여름방학 어린이 회계캠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장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8년 여름방학 어린이 회계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어린이 회계캠프는 초등학생부터 회계의 중요성과 기능을 가르쳐 회계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올바르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어린이 회계캠프에는 공인회계사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지도교사로 참여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회계의 역사, 회계의 기초개념과 중요성, 기업의 주요 활동인 구매, 생산 및 판매활동을 설명하고 체험토록 했다.

/손염지 기자

바이오株 거품우려에 주가도 요동친다

**금감원 회계처리 공시기준 강화
R&D 비용 무형자산 처리에 제동**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사가 강화됨에 따라 대부분 2분기 실적공시와 함께 정정보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돼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봤지만 바이오주에 대한 불신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16일 주식시장에서 이수앱지스는 전일 대비 3.49% 하락한 7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또 일양약품은 전일 대비 1.88% 하락했으며 메디포스트, 바이오니아, 일양약품, CMG제약 등 실적 정정공시를 낸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거나 장중 하락세를 지속하다 마감 직전 저가매수세의 유입으로 소폭 반등했다.

오스코텍은 13.64%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공매도 숏커버링(short covering)'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숏커버링이란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비싼 가격에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값을 말한다. 실제 오스코텍은 회계 자산화 이슈가 불거진 5월부터 공

(2017년 영업이익의 정정내역)

(단위: 원)

종목	정정전	정정후
오스코텍	-1,637,183,469	-5,805,528,343
메디포스트	-5,311,451	-3,639,226,316
이수앱지스	-4,799,000,000	-8,047,000,000
바이오니아	-5,869,831,730	-4,954,727,845
일양약품	23,868,473,121	24,433,087,807
CMG제약	2,327,000,000	1,559,000,000

/자료=전자공시시스템 dart

매도 물량이 급증했고, 지난 7월 한 달 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평균 10.4%에 달할 만큼 대량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1월(0.7%)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앞서 6개 기업은 2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지난 분기와 2017년 실적 정정공시를 냈다. 금융감독원이 바이오기업의 회계 감리를 시작하면서 바이오기업들의 개발비 자산화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흔히 바이오기업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을 자산화해 왔다. 보통 R&D 비용은 회계 장부에 '무형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이는 고스란히 회사 자산이 된다. 이 경우 장부상 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나 재무구조도 좋아지게 된다. 문제는 불확실성이 큰 바이오기업들이 상용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R&D 비용까지 모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서 금감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 오스코텍, 메디포스트, 이수앱지스, CMG제약 등은 자산화했던 연구개발비를 일부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감소하거나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코텍은 지난 해 무형자산처리했던 55억5400만원의 연구개발비 중 1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에 영업손실은 16억3718만원에서 58억552만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났다.

메디포스트는 공시를 통해 "임상3상이 후에 발생한 지출 중 정부승인의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영업손실을 531만 원에서 36억3922만원으로 수정했다.

이수앱지스 역시 "신약 개발비에 대해 자산화 요건 재검토하여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했다"면서 지난해 영업손실을 47억9900만원에서 80억47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바이오주 전반에 퍼졌던 훈풍은 이제 일부 수혜 종목으로만 진행될 것으로 봤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바이오주 전반에 불었던 광풍이 이제 잡잡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회계 처리 방식이 투명해지는 만큼 바이오 업계 육식을 가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제약·바이오주 회계처리에 대한 공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비는 회계처리 방법을 공시하고, 처리 내역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무형자산(개발비)과 판권비, 제조경비와 함께 회사별로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는 정보보조금 금액도 명시한다.

/손염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e편한세상 영천' 청량리까지 1시간 40분



**내년 복선전철 완공 교통망 개선
입주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북 영천에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이 첫 선을 보인다.

대림산업은 경북 영천 완산지구 도시개발구역 B-1·2블록(영천시 완산동 732-1번지)에 위치한 'e편한세상 영천'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영천'은 지하 1층~지상 25층 16개 동, 전용 74~184㎡ 1210가구로 조성된다.

세부타입별로는 ▲74㎡A 130가구 ▲74㎡B 48가구 ▲84㎡A 667가구 ▲84㎡B 180가구 ▲84㎡C 21가구 ▲112㎡ 156



'e편한세상 영천' 투시도.

/대림산업

가구 ▲144㎡ 6가구 ▲184㎡ 2가구다. 'e편한세상 영천'은 교통망 개선이 기대되는 단지다. 내년 말 대구선 동대구~영천 구간 복선전철이 완공, 개통되면 영천역에서 동대구역까지 약 17분에 도달한다. 청량리~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예정)이 마무리되면 청량리역까지 소요시간이 약 1시간 41분으로 단축된다.

영천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는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화학 등 70여

개의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마친 상태다. 또 2023년까지 개발되는 하이테크 파크지구에는 항공전자, 스마트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관련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마·테마파크시설로 꾸미진 복합 휴양레저 문화타운 '벤틱트파크 영천'도 조성된다.

단지는 진도 7 규모의 지진도 견딜 수 있는 특등급 내진 설계됐다.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30mm)보다 두 배 두꺼운 60mm 바닥차음 단열재를 설치,

층간소음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였다. 내외벽에는 단열 설계를 통해 열손실을 줄였다.

YBM과 연계한 영어마을을 조성해 입주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 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셔틀버스(단지별 25인승 각 1대, 총 2대)를 제공하고 골프연습장, 사우나실, 휘트니스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790만원대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1단지와 2단지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분양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30일이며, 9월 12~14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e편한세상 영천'의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968-3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1년 3월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견본주택 개관

(주)한양

711가구 중 255가구 일반분양

(주)한양은 경기도 성남에 들어서는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견본주택을 17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16일 한양에 따르면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22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25층 7개 동, 40~74㎡(이하 전용) 711가구 중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세부면적별로는 ▲40㎡ 104가구(일반 59가구) ▲50㎡A 220가구(일반 180가구) ▲50㎡B 36가구(일반 6가구) ▲59㎡A 217가구(일반 3가구) ▲59㎡B 88가구(일반 5가구) ▲74㎡ 46가구(일반 2가구) 등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조감도

/한양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는 도보 거리에 하원초·대원중·금광중·송신여중·송신여고 등 초·중·고교가 위치한다. 단지 주변에는 성남시 중원 어린이도서관, 우주체험관도 있다.

교통망도 갖췄다. 성남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다. 분당

-수시간 고속화도로도 가까워 강남, 송파, 분당, 위례 등으로 갈 수 있다. 향후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예정) 등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

또 금광동 일대는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금광3구역)를 비롯해 금광1구역, 상대원3구역 등 인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된다. 추가 생활인프라 확충과 인구유입, 교통개선 등으로 주거환경 향상도 기대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검단산이 위치해 일부 가구는 탁 트인 녹지조망을 누릴 수 있다. 교통체험학습장, 황송공원, 은행식물원, 자혜공원, 노루목공원, 은행권린공원도 가깝다.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653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1년 2월이다.

/채신화 기자

SK증권

서산 대산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투자·주선

SK증권은 한화에너지·한국동서발전·두산과 함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인 대산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자 및 금융주선자로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공장 부지내에 국내 최초 50MW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연소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화력발전과 달리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발전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본 사업은 오는 2020년 6월 상업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손염지 기자